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 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쓰여 있다.



[사진] 추철회시문다완(萩鐵繪詩文茶碗)

(가)

개야 즈치 말라 밤 사름 다 도دت가
 즈목지 호고려 님 지슌 덩겨스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줌즘ㅎ느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나)

개야 좃지 마라 밤 스람이 다 도적가
 두목지* 호걸이 님 쉼심 단니노라*
 그 개도 호걸의 집 갠지 듯고 줌즘ㅎ더라

* 두목지: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 쉼심 단니노라: 찾아러 다니노라.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란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조 (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우라
 미운 입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똥락 내리똥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입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짚어서 돌아가게 한다

원뺨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라

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다)는 그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丁未七賊)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쓰였다. 작품이 창작된 시점을 고려할 때 (라)의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목 ‘살구(殺狗)’는 ‘개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라)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같이 알땀고 좃미우라
 낮선 타쳐 사람 보게 되면 꼬리를 회회 치며 반겨라고 내달아
 요리 납작 조리 가웃하되 낮익은 집안사람 보면은 두 발을
 뺨디디고 콧살을 찡그리고 이빨을 영성거리고 쾅쾅 짚는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야

보아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어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우지 아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자연(自然) 박살
 -작자 미상, 「살구」-

이상과 같은 변모의 사례들에서는 앞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표기·표현·주제·양식 등에서 다양한 변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모는 이본, 작품, 갈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본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표기나 표현 가운데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주제·양식 등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작품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주제 등이 바뀌어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갈래 차원의 변모는 새로운 작품이 앞선 작품과 다른 양식에 근거하여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갈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좃지 마라’라고 한 것은 ‘밤 스람’이 개가 짚는 소리에 발걸음을 되돌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겠군.
- ② 초장의 ‘도적’과 중장의 ‘두목지 호걸’은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군.
- ③ 중장의 ‘두목지 호걸’은 ‘두목지 같은 호걸’로 풀이되어 ‘호걸’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드러내는군.
- ④ 중장의 ‘줍즘ㅎ더라’는 ‘호걸이 님 쉼심’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었음을 암시하는군.
- ⑤ 중장은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좃지 마라’라고 부탁한 이유를, 중장은 그 결과를 드러내는군.

2. '개'를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다)의 개는 모두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
- ② (나)와 (다)에서는 모두 지시어에 의해 개와 화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환기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는 모두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개의 반응이 다른 데서 시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④ (나)의 개는 화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다)의 개는 화자와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 ⑤ (나)의 개가 상황이 변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면, (다)의 개는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3. (가)~(라) 사이에 이루어진 변모의 양상을 ㉠~㉢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한 것은?

- | | ㉠ | ㉡ | ㉢ |
|---|-----------|-----------|-----------|
| ① | (가) → (나) | (나) → (다) | (다) → (라) |
| ② | (가) → (나) | (다) → (라) | (나) → (다) |
| ③ | (나) → (가) | (나) → (다) | (다) → (라) |
| ④ | (나) → (가) | (다) → (라) | (나) → (다) |
| ⑤ | (다) → (라) | (나) → (다) | (가) → (나) |

4.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글 표기를 통해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가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운 임'에 대한 원망(怨望)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는 '고운 임' 탓에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셈이겠군.
-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 ⑤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것이라면, '타처 사람'과 '집안사람'은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는 표현이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쓰여 있다.



[사진]
추철회시문다완(萩鐵繪詩文茶碗)

‘개’를 소재로 한 시조들은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중 이 사진에 있는 도자기에 적힌 작품은 (가)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 작품부터 천천히 읽어 봅시다.

(가)

개야 즈치 말라 밤 사람 다 도둑가
즈목지 호고려 님 지슘 덩겨스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줌즘흔느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화자는 밤의 사람이 다 도둑이 아니라며 ‘개’에게 짓지 말라고 합니다. 호고려(조선) 사람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호고려(조선)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을 듣고 ‘개’도 잠잠해 집니다. ‘개’도 호고려(조선)에서 온 개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랑 유사하지만,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나)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 주목합시다.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작품 이해하기

사실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국어 지식으로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지 않고 호고려가 조선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품 해설에서는 현대어로 의미 풀이를 해 드렸지만, 위 작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력이 부족하거나 한다는 등의 자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지문은 (나) 지문의 등장을 위해 제시된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비 평가 문제가

기에 수능의 출제 방향과는 거리가 있기에 가볍게 이런 작품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작품 총평

해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 작품입니다. 이 문제 세트는 문학 비문학 복합 지문이기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볍게 보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나)

개야 좃지 마라 밤 스람이 다 도적가
두목지* 호걸이 님 추심 단니노라*
그 개도 호걸의 집 갠지 듯고 줌즘흔더라

* 두목지 :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 추심 단니노라 : 찾으러 다니노라.

(가)와 (나)는, 일부 지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란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조 (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화자는 ‘개’에게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목지 호걸이 님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자는 두목지 호걸이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화자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개’는 호걸의 집 개인지 이 말을 듣고 잠잠해 집니다.

이 작품은 (가)의 작품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신 이 작품은 오기도 없고, 현대어로 풀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은 시대가 지나 (다)와 같은 사설시조로 재창작됩니다.

#작품 총평

(가)에 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목지 호걸을 위해 개에게 짓지 말라고 하고, 개도 그 소리를 듣고 잠잠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라
미운 임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뛰락 내리뛰락 반겨서
내달고 고운 임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짚어서 돌아가게 한다
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라

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다)는 그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丁未七賊)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쓰였다. 작품이 창작된 시점을 고려할 때 (라)의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목 '살구(殺狗)'는 '개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대상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이번 작품도 시적 대상은 '개'입니다. 화자는 '개'를 많이 기르지만 하나의 '개'가 매우 얄밉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운 임이 오면 꼬리를 치며 반가워하지만, 고운 임이 오면은 캉캉 짚어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밥이 남아도 이 '개'에게는 먹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화자가 좋아하는 임이 오면 쫓아버리는 개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고운 임이 오면 짚어서 돌아가게 하는 개를 원망하는 작품입니다. 시적 화자가 여성 화자인 것 같습니다. 읽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같이 얄밉고 잣미우라
낯선 타처 사람 보게 되면 꼬리를 회회 치며 반겨라고 내달아
요리 납작 조리 가웃하되 낯익은 집안사람 보면은 두 발을
뻗디디고 콧살을 찡그리고 이빨을 엉성거리고 쾅쾅 짚는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야
보이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어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우지 아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자연(自然) 박살
-작자 미상, 「살구」-

이상과 같은 변모의 사례들에서는 앞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표기·표현·주제·양식 등에서 다양한 변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모는 이본, 작품, 갈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본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표기나 표현 가운데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주제·양식 등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작품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주제 등이 바뀌어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갈래 차원의 변모는 새로운 작품이 앞선 작품과 다른 양식에 근거하여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갈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대상 파악하기

② 화자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이번 작품도 시적 대상은 '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곱 마리의 '개'를 얄미워하네요. 이 '개'들은 낯선 타처 사람들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기지만, 낯익은 사람들을 보면 캉캉 짚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근일에 새로운 '개' 규칙이 반포돼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안 채우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이 일곱 마리의 '개'는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에서 보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해봅시다. 일곱 마리의 '개'는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팔아 먹은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낯선 타처 사람들에게 반긴다는 것은 일본에게 반긴다는 것을, 낯익은 사람들을 보면 짚는다는 것은 조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 '개'들, 즉 정미칠적이 죽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 총평

(다)에서 제시된 배경지식을 토대로 작품을 해석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어 풀이도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1.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①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쫓지 마라'라고 한 것은 '밤 스람'이 개가 짚는 소리에 발걸음을 되돌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겠군.

→ 화자는 개에게 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밤스람'이 다 도적이 아니고 두목지 호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목지 호걸이 이 소리를 듣고 화자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초장의 '도적'과 중장의 '두목지 호걸'은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군.

→ 화자는 '두목지 호걸'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에게 쫓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적'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밤의 사람들이 다 '도적'이 아니니까 쫓지 말라는 것이지, '도적'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③ 중장의 '두목지 호걸'은 '두목지 같은 호걸'로 풀이되어 '호걸'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드러내는군.

→ ‘두목지’는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두목지 호걸’은 ‘두목지 같은 호걸’로 풀이할 수 있다. ‘두목지’는 옛 사람이기에 실제 ‘두목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종장의 ‘좁좁허더라’는 ‘호걸’이 ‘님 추심’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었음을 암시하는군.

→ 종장에서 개가 ‘호걸’의 집 개인지 잠잠해집니다. 개가 더 이상 짖지 않기에 ‘호걸’이 님을 찾으러 다니기 용이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종장은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좃지 마라’라고 부탁한 이유를, 종장은 그 결과를 드러내는군.

→ 초장에서 화자는 개에게 짖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 두목지 호걸이 님을 찾아 다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종장에서 개는 잠잠해집니다.

2. ‘개’를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나)와 (다)의 개는 모두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

→ (나)의 화자는 두목지 호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개에게 짖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의 화자는 고운 임이 오면 짖어 돌아서게 하는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운 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개가 짖어버려 임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② (나)와 (다)에서는 모두 지시어에 의해 개와 화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환기되고 있다.

→ (나)에서는 그 개, (다)에서는 요 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시어에 의해 개와 화자 간 물리적 거리가 환기됩니다.

③ (나)와 (다)에서는 모두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개의 반응이 다른 데서 지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나)의 화자는 두목지 호걸을 기다리지만 개는 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의 화자는 고운 임을 기다리지만 개는 고운 임을 보면 짖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개의 반응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④ (나)의 개는 화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다)의 개는 화자와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 (나)의 개는 두목지 호걸이 님을 찾아다니는 화자의 말을 듣고 잠잠해집니다. 화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의 개는 화자가 기다리는 고운 임을 보면 짖는 대상으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화자와 교감을 나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⑤ (나)의 개가 상황이 변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면, (다)의 개는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 (나)의 개는 화자의 말을 듣고 짖다가 잠잠해집니다. 행동을 바꾸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의 개는 미운 임이 오면 반기고, 고운 임이 오면 짖기에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라) 사이에 이루어진 변모의 양상을 ㉠~㉢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한 것은?

정답 : ④

- ㉠ 이본 차원
- ㉡ 작품 차원
- ㉢ 갈래 차원

	㉠	㉡	㉢
①	(가) → (나)	(나) → (다)	(다) → (라)
②	(가) → (나)	(다) → (라)	(나) → (다)
③	(나) → (가)	(나) → (다)	(다) → (라)
④	(나) → (가)	(다) → (라)	(나) → (다)
⑤	(다) → (라)	(나) → (다)	(가) → (나)

→ ㉠은 표기나 표현이 일부 바뀌지만, 주제나 양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와 (나)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나)가 먼저 등장했다고 했으니 (나)→(가)의 관계가 ㉠이 됩니다.

다음 ㉡입니다. 이는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지만, 표현이나 주제 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다)와 (라)의 관계입니다. 두 작품은 양식은 그대로지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다)는 임을 기다리는 이야기, (라)는 정미칠적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이는 갈래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나)와 (다)의 관계입니다. 본문에서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재창작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4.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①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글 표기를 통해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글로 도사기에 이런 작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글 표기를 통해 도공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② (가)가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

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①번 선지의 해설과 일맥상통하는 선지입니다. 도공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운 입'에 대한 원망(怨望)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는 '고운 입' 탓에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셈이겠군.

→ (다)가 '고운 입'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가정한다면, '고운 입'이 화자를 만나지 않아 주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고운 입'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개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는 '고운 입' 탓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일곱 마리 개, 즉 정미칠적을 죽이는 규칙입니다. 친일파들을 죽이는 규칙이지 한일신협약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⑤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것이라면, '타처 사람'과 '집안사람'은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는 표현이겠군.

→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작품이라면, '타처 사람'은 일본, '집안사람'은 조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